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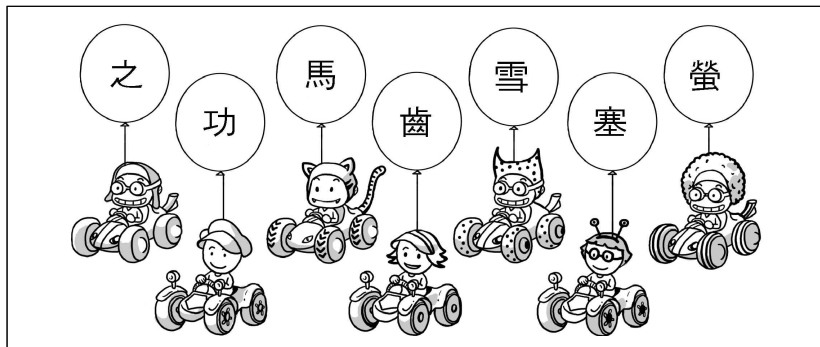


11. 그림의 내용으로 유추할 수 있는 성어는? [1점]



- ① 不恥下問      ② 日就月將      ③ 孤掌難鳴
- ④ 相扶相助      ⑤ 緣木求魚

12. 그림의 글자로 만들 수 있는 사자성어의 속뜻은?



- ① 고생을 하면서 공부하여 얻은 보람
- ②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함
- ③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
- ④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 어려움
- ⑤ 가까운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온전하기 어려움

13. 글의 내용과 관계있는 성어는?

농사를 같이 지은 형제가 벼를 어떻게 나눌지 상의하였다.  
 형 : 벼의 윗부분은 내가 가질 테니 너는 아랫부분을 가져라.  
 동생 : 불공평해. 싫어!  
 형 : 내년에는 반대로 네가 윗부분을 가지면 되잖아.  
 동생 : 알았어.  
 다음해가 되었다.  
 형 : 올해는 벼를 심지 말고 감자를 심자구나.  
 동생 : 그러지 뭐. - 『소림(笑林)』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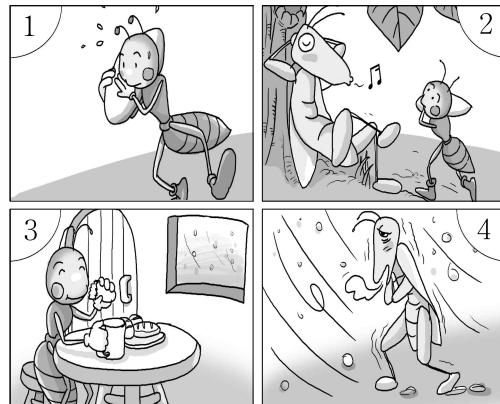
- ① 近墨者黑      ② 朝三暮四      ③ 漁父之利
- ④ 錦上添花      ⑤ 矯角殺牛

14. ㉠~㉣에 공통으로 들어갈 한자는?

○ 欲修其身者, 先正其(㉠). - 『대학(大學)』 -  
 ○ 以責人之(㉡), 責己, 以恕己之(㉢), 恕人. - 『송사(宋史)』 -

- ① 心      ② 家      ③ 氣      ④ 國      ⑤ 慾

15. 그림의 내용과 관계있는 것은?



- ① 己所不欲, 勿施於人.
- ② 不入虎穴, 不得虎子.
- ③ 春若不耕, 秋無所望.
- ④ 乾處兒臥, 濕處母眠.
- ⑤ 農夫餓死, 枕厥種子.

[16~17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夫㉠天地者, ㉡萬物之逆旅, 光陰者, ㉢百代之㉣過客, 而㉤浮生若夢, 爲歡幾何? 古人秉燭夜遊, 良有以也.  
 \*秉(병): 잡다  
 - 이백(李白), 「춘야연도리원서(春夜宴桃李園序)」 -

16. 위 글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?

- ① 인생의 덧없음에 대해서 느끼고 있다.
- ② 학문에 부지런히 힘쓰기를 권하고 있다.
- ③ 시간과 공간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.
- ④ 옛사람이 밤에 노닐던 행동을 이해하고 있다.
- ⑤ 서로 대(對)가 되는 글귀로 짝을 맞추고 있다.

17. ㉠~㉣ 중, 한자어의 짜임이 다른 하나는?

- ① ㉠      ② ㉡      ③ ㉢      ④ ㉣      ⑤ ㉤

[18~20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安東俗, ㉠於每歲正月十六日, 金海, 於四月八日, 及端午日, 丁壯畢會, 分左右隊, ㉡投石以決勝負. 雖死傷, 不悔, 謂之石戰. 征倭時, 募爲先鋒, 賊不敢前.  
 \*倭(왜): 왜국      \*鋒(봉): 칼날      - 『지봉유설(芝峯類說)』 -

18. 위 글의 '석전'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?

- ① 전쟁에도 이용되었다.
- ② 좌우로 편을 나누었다.
- ③ 남녀노소가 참여하였다.
- ④ 안동과 김해에서 행해졌다.
- ⑤ 부상을 입어도 아랑곳하지 않았다.

19. ㉠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?





- ① 于      ② 自      ③ 何      ④ 所      ⑤ 與

20. ㉡에서 마지막으로 풀이되는 것은?

- ① 投      ② 石      ③ 決      ④ 勝      ⑤ 負

21. 글의 내용과 가장 관계있는 것은?

床有鳴鐘, 報時不差. - 『담헌서(湛軒書)』 -

①  ② ③  ④  ⑤ 

[22~23]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(가) 日①入投孤店, 山深不掩扉.  
鷄鳴問前路, 黃葉向人飛.  
\*掩(엄): 닫다 \*扉(비): 사립문  
- 권필(權驥), 「도중(途中)」 -

(나) 江碧鳥逾白, 山青花欲②然.  
今春看又過, 何日是歸年. \*逾(유): 더욱  
- 두보(杜甫), 「절구(絕句)」 -

22. ㉠, ㉡의 풀이가 모두 바른 것은?

- ㉠ ㉡
- ① 새다 그리하다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지다 그리하다  
③ 새다 불타다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지다 불타다  
⑤ 지다 떨어지다

23. (가), (나)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?

- ① (가)의 시적 화자는 객지를 여행하는 중이다.  
② (가)의 제3구에는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 있다.  
③ (가)의 제4구를 통해 계절적 배경이 가을임을 알 수 있다.  
④ (나)의 제1, 2구는 청각적 조화를 이루고 있다.  
⑤ (나)의 제3, 4구에는 나그네의 애달픈 마음이 나타나 있다.

[24~25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明君, 制民之產, 必使仰足以事父母, 俯足以畜妻子, 樂歲, 終身飽, 凶年, 免於死亡, 然後, 驅而之善. 故, 民之從之也①輕.  
\*俯(부): 숙이다 - 『맹자(孟子)』 -

24. ㉠의 풀이로 바른 것은?

- ① 민다    ② 쉽다    ③ 알보다    ④ 높이다    ⑤ 바라다

25. 위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① 백성에게 생업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.  
② 백성이 생업으로 부모를 봉양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어.  
③ 백성이 생업으로 처자식을 부양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어.  
④ 백성을 착하게 교화하는 것이 급선무라 했어.  
⑤ 흉년에도 백성이 굶어 죽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어.



[26~27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(가) 天步西門遠, 東宮北地危. 孤臣憂國日, 壯士樹勳時.  
誓海魚龍動, 盟山草木知. 讐夷如盡滅, 雖死不爲辭.  
\*勳(훈): 공 \*誓(서): 맹세하다 \*讐(수): 원수  
- 이순신(李舜臣), 「진중음(陣中吟)」 -

(나) 子曰: “知者不惑, 仁者不憂, 勇者不(㉠).”  
- 『논어(論語)』 -

26. (가)에 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

<보 기>

ㄱ. 형식은 오언율시이다.  
ㄴ. 운자는 ‘遠’, ‘日’, ‘動’, ‘滅’이다.  
ㄷ. 나라를 구하려는 다짐이 나타나 있다.  
ㄹ. 제7구와 제8구가 대우(對偶)를 이룬다.

① ㄱ, ㄴ    ② ㄱ, ㄷ    ③ ㄴ, ㄷ    ④ ㄴ, ㄹ    ⑤ ㄷ, ㄹ

27. (나)를 (가)의 시적 화자의 태도와 연관 지어 볼 때, ㉠에 알맞은 것은?

- ① 念    ② 敏    ③ 會    ④ 進    ⑤ 懼

[28~30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李之菡, 號, 土亭. <중략> ㉠拜牙山縣監, 聚民, 問㉡疾苦, 有以魚池爲苦. 蓋邑有養魚池, 使民輪回捉魚以③納, 民甚苦之. 之菡, 乃④塞其池, 永⑤絕後患. 公, 哀流民⑥弊衣乞食, 爲作巨室以館之.  
\*聚(취): 모으다 \*乞(걸): 빌다  
\*李之菡(이지함): 조선 시대 인물  
- 『연려실기술(燃藜室記述)』 -

28. ㉠~㉥의 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?

- ① ㉠: 절하다    ② ㉡: 들이다    ③ ㉢: 매우다  
④ ㉣: 없애다    ⑤ ㉥: 해지다

29. ㉡의 독음으로 바른 것은? [1점]

- ① 병고    ② 병약    ③ 질약    ④ 질고    ⑤ 질초

30. 이지함의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?

- ① 백성의 부담을 줄여 주었다.  
② 떠돌아다니는 백성을 불쌍히 여겼다.  
③ 백성도 물고기를 잡도록 허락하였다.  
④ 백성에게 무엇이 고통스러운지 물었다.  
⑤ 어려운 백성을 위하여 큰 집을 지어 주었다.

\* 확인 사항

○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(표기)했는지 확인하시오.